

News

'무더기 부실위기' 자영업대출 133조...인수위 "배드뱅크 검토"

한국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문제 해결 위해 부실채권 관리 전담 '배드뱅크' 설립 검토
현실화시 대출자 입장에서 신용불량자 낙인 전 일부 탕감 포함 맞춤형 채무재조정 받을 수 있어... 재원 조달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

우리은행, 오늘부터 적격대출 3개월치 한번에 공급한다

머니S

우리은행, 올 2분기부터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적격대출 한도 관리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전환... 집값 상승세 주춤으로 주담대 수요가 줄어 월단위 관리 필요성 없어져...
이에 따라 적격대출 공급 규모 증가 예상...1,000억원 정도가 한번에 공급될 것... 금리는 연 3.8%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

케이뱅크, 신용대출 금리 최대 0.4%p 인하... 마통은 2억까지

서울경제

케이뱅크, 신용대출 금리 최대 0.4%p 인하... 신용대출 플러스 3.75%, 신용대출 상품 3.04%, 마이너스통장 상품 3.54%로 낮아져...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최대한도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신용대출 최대한도 3억원, 신용대출 플러스 최대 1억 5,000만원

토스뱅크 출범 첫해 806억원 적자

서울신문

토스뱅크, 작년 10~12월 영업하며 806억원의 당기순손실 기록... 이자수익으로 312억원 거두었으나 이자 비용으로 424억원 지출하며 112억원 이자 순손실 발생
이용자수 124만 2,700명, 총자산 14조 3,485억원 집계... 올 1월부터 대출 영업 재개한 만큼 경영지표 빠르게 개선해나갈 방침

"지점 방문하지 마세요" ...생보사 '비대면' 승부

이뉴스투데이

생보업계, 지점 수 줄이며 비대면 서비스 강화 노력 중... 자사 모바일 플랫폼 개선... 삼성생명, 지난 1월 단체보험과 가입 고객 전용 홈페이지 오픈
작년 9월말 기준 생보업계 본부, 지점, 영업소 합한 점포 개수는 총 2,282개로 1년간 662개 감소... 재판분리 가속화로 설계사 조직이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분리된 것도 이유

실손보험료 너무 올랐나...4세대 전환 월 2만건 넘어

이데일리

손보업계 상위 5개사, 4세대 실손보험 판매건수는 총 72만 342건으로 집계... 이들이 전체 실손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4%
작년 7월 이후 4세대 실손보험 신규계약 건수는 월평균 6만건 안팎으로 큰 변화는 없어... 다만 전환계약건수가 2월 24,788건으로 출시초 대비 2배 이상 급증

천원으로 테슬라 산다 치열한 소수점거래 경쟁...각사별 보니

머니투데이

해외주식 투자자 증가하며 증권사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 경쟁 치열... 현재 소수점거래 시행하는 증권사는 총 8곳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은 실시간 소수점거래 서비스 놓고 경쟁 중... 거래대상 종목 수, 수수료, 거래방식 등에 차별화 두며 경쟁... 키움증권 수수료 0.01% 등 혜택 제공

5월 IPO 시장 들썩...원스토어, SK실더스 쌍끌이 출격

마켓인사이트

토종 앱스토어 원스토어와 보안전문회사 SK실더스가 5월 신규 상장을 위한 주식 공모에 나서... 두 회사 모두 SK스퀘어의 자회사
1월 LG에너지솔루션 이후 대어가 없던 공모주 시장에 훈풍 예상... 두 회사 모두 시장친화적 공모가 제시...원스토어 34,300~41,700원, SK실더스 31,000~38,800원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